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한 요구

윤 목 금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워 온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일뿐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워야 하겠습니다.

도덕기강이 해이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수 없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65~66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도덕기강을 세우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도덕을 지키는것을 생활화, 체질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진행되며 이것은 사상문화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다.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주되는 분야의 하나는 도덕생활분야이다. 적들이 우리 내부에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이밀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양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은 청년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타락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도덕적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이 해이되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도덕의 본태가 흐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혁명도 모르고 개인의 리익만 추구하는 정신도덕적불구자로 병들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사상과 제도, 전통을 고수할수 없게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게 된것은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도덕을 체질화하기 위한 도덕교양사업을 소홀히 하여 사회의 도덕기강이 해이되고 도덕적기초가 허물어진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이것은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이 곧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때문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요인이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도 역시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이며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일심단결된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뿐만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사회적집단이라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 위력은 바로 통일단결의 강화에 있다. 혁명의 주체의 조직사상적통일단결도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가장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도덕을 생활화, 체질화하여야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수령을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어버이로 모시고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며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위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그러므로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수령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심으로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과 수령을 자기 생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의리심을 간직하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도덕을 체질화하여 수령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시는것을 의무로서가 아니라 량심으로, 의리로 여기는 사회적기풍이 차넘칠 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준엄한 력사의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변함없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할수 있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도덕의리적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사회주의를 고수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인 군대와 인민에 대한 헌신성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도덕의 기본요구로 된다.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전사회적으로 군대를 성심성의껏 원호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모든 사람들이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어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다.

수령에게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것을 체질화, 생활화하는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지 않는다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가장 공고한 도덕적기초우에서 불패의것으로 다져질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의 주체가 약화되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는 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기를 이어 가증되어온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불가항력적위력으로 승승장구하여올수 있는 비결은 바로 도덕기강을 세우는 사업을 한시도 중단없이 심화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도덕의리의 통일체로 비상히 강화발전시켜온데 있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를 변질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우리 내부에 반동적인 자본주의사상, 썩어빠진 부르쥬아문화와 생활풍조를 불어넣어 우리의 사회주의를 사상적으로 변질와해시키기 위한 반사회주의적모략책동이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침투를 감행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현시기 반동적인 사상문화는 침략의 길잡이가 아니라 주역을 놓고있다.

부르쥬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문화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부르쥬아사상문화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썩고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으며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와 범죄현상을 만연케 하는 위험한 독소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부르쥬아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불순목화물과 출판물, 방송을 비롯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막아내지 못하면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없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고 무장해제시켜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자는것이다. 특히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한 마음을 흐리게 하자는것이 적들의 기본목적이다.

적들이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말려들면 견실하던 사람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되고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며 나중에는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의 혁명진지를 허무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하게 벌려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속에 썩어빠진 부르쥬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이 쉽게 침투되고 우리 식이 아닌 이질화된 생활풍조가 만연되어 건전한 사회적분위기를 흐리게 하며 집단주의적생활질서를 파괴하는데로 나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가 사회주의도덕에 기초한 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사회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되어 그 우월성이 발휘되게 되는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고정불변하지 않듯이 고상한 도덕품모도 끊임없는 교양과 통제를 통해서만 변색을 모르고 자기의 본태를 고수하며 발전할수 있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거나 례의도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고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피상하게 하고 다니는것을 비롯하여 비도덕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스쳐지나게 되면 그것이 자라 사회주의의 도덕적기초를 허물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없게 된다.

적들이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서 노리는 기본대상은 다름아닌 새 세대 청년들이다.

청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미학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속에서 날라리풍,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사업과 통제를 옹계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벌려 새 세대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당과 혁명, 조국과 집단앞에 지닌 사회적, 도덕적의무를 자각하고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규범의 요구대로 사업과 생활을 질서있고 건전하게 해나

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이고 필요한 모든 곳에 모기장을 든든히 치도록 하며 우리 인민의 기호와 사상감정에 맞는 고상하고 문명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류형을 창조하고 보급일반화하여 어디서나 우리의 노래와 장단이 울려 퍼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참으로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세우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사회주의수호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강을 더욱 철저히 세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문명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도덕기강, 사상문화적침투책동